

간호대학생의 DISC 행동유형이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해란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DISC Behavioral Style on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Clinical Performance

Hearan Kim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심사용 투고요령입니다. 본 논문은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심사용 투고요령입니다. 간호대학생이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하여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최근 인간의 개인 행동 유형을 파악하여 유형에 따른 중재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DISC 행동유형이 간호대학생들의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시도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H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들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ISC 행동유형 분석결과, 주도형 10.6%, 사교형 33.8%, 안정형 48.5%, 신중형 7.1%으로 나타났다. 지식과 임상수행능력 점수는 집단 간, 측정시점 간, 집단과 측정시점 간의 교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측정시점에 따른 지식 점수는 1차(F=4.51, p=0.31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차(F=3.44, p=0.018), 3차(F=2.1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수행능력 점수는 1차(F=3.69, p<.001), 2차(F=4.70, p=0.003), 3차(F=1.2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간호대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동유형은 다양하고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학습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장점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SC behavioral style on the knowledge and clinical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nursing students in the fourth grade of university and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March 2015 to December 2016.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DISC behavioral style analysis showed that 10.6% were dominant, 33.8% were influence, and 48.5% were steadiness and 7.1% were conscientiousness. Knowledge score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d points of DISC behavioral style did not show differences in the first, but did show differences in the second and third. Conversely, clinical performance score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ment points of DISC behavioral style showed differences in the first, second and third. Knowledge and clinical performance score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groups, between measurement points and between groups and measurement points. As a result, DISC behavioral styl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vary, with each having merits and demeri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se points and to develop merits in order to improve the learning outcomes of the curriculum.

Keywords : Nursing, Education, Behavior, Knowledge, Clinical Performance

*Corresponding Author : Haeran Kim(Chosun Univ.)

Tel: +82-2-230-6317 email: rahn00@chosun.ac.kr

Received August 8, 2018

Revised (1st September 5, 2018, 2nd September 7, 108)

Accepted November 2, 2018

Published November 30,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들은 학사과정 동안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해야 하고, 입학부터 졸업까지 과도한 학습량과 여유롭지 않은 학사 일정을 경험하게 된다[1, 2]. 이 과정에서 학습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거나 학과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부적응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3-5]. 이에 간호대학생이 성공적으로 학과와 대학생활에 적응하여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인으로서 양성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유형을 파악하여 유형에 따른 중재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연구가 점점 관심을 받고 있다[6-8]. 행동이란 개인의 외적 특성으로 모든 인간은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개인마다 독특한 행동패턴을 보인다. DISC는 행동유형으로 내적 성향뿐만 아니라 관찰 가능한 인적자원의 행동패턴에 주목한다. 1979년 Marston은 이러한 인간의 행동연구를 통해 DISC라는 4가지 인간 행동유형을 모형화 하였다[9].

DISC 행동유형은 인간이 직면한 환경에 대한 관점과 환경에 비추어 자신의 개인적 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자기주장이 강하고 추진력이 뛰어난 주도형(Dominance, D style), 낙관적으로 친근감 있는 사교형(Influence, I style), 일관된 태도로 한결 같은 안정형(Steadiness, S style), 치밀하고 논리적이며 사실에 입각한 신중형(Conscientiousness, C style)으로 명명하였다[10, 11]. 인간의 행동유형은 서로 비슷한 유형으로 분리할 수 있고, 유사성은 상호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반면 다양성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 현장에서는 DISC 행동유형을 통해 구성된 개인에게 적합한 업무 처리 방식을 제시하여 업무성과와 질을 극대화하고 있다[12, 13].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후 가장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병원 환경은 다양한 형태의 행동유형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들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운영된다[14]. 특히 간호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간호사 개인의 감정, 사고, 행동은 전문 간호역량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간호사의 DISC 행동유형에 대한 인식은 병원 업무현장에서 개인의 행동유형과 강점을

발견하여 전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15, 16].

그러므로 졸업 전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행동유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힘든 학사과정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개별 대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과 적응 및 취업 후 이직률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DISC 행동유형과 간호대학생의 성격,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요소와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만족도와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투약 오류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17-21].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학사과정에서 학업성취도와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지식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DISC 행동유형을 알아보고 행동유형이 전문역량으로서 중요한 요소인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의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학사과정 또는 취업 후 병원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DISC 행동유형이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DISC 행동유형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지식과 임상수행능력 점수의 변화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DISC 행동유형이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의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 소재 4년제 H대학의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의 수를 G*Power 3.1.4를 이용하여 추정해보면, 4개 집단의 분산분석을

위해 중간 효과크기 $f=2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으로 선정하였을 때 적절한 대상자수는 18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 학년의 수가 100명을 넘지 않았으므로 시뮬레이션 교과목을 수강하는 2015년 4학년 106명과 2016년 99명의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205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100%가 회수되었으나, 그 중 설문 응답이 미흡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여 198부(96.6%)가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DISC 행동유형

DISC 행동유형은 Marston (1928)이 개발한 도구로써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컨설팅 연구소(2002)가 번역하여 제작한 DISC 행동유형 한국어판의 간이형을 사용하였다[11]. 본 도구는 24개 문항으로 총 96가지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주도형(Dominance), 사교형(Influence), 안정형(Steadiness), 신중형(Consciousness)에 해당되는 4가지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24개 문항마다 4가지 형용사 중에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4가지 행동유형 중 이에 해당되는 형용사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경우 본인의 행동유형으로 분류된다. 즉, 이를 통해 타인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개인의 행동유형인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의 하위 변인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4이었다.

2.3.2 지식

지식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도구를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여 평가하였다. 최근 5년간 출제되었던 한국 간호사 국가고시 문제를 기반으로 4개 시나리오와 관련된 내용으로 각각 20문제씩의 5지 선다형 객관식 문항이 개발되었고, 시뮬레이션 교과목을 현재 가르치는 간호학 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 CVI)가 .80 이상으로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맞으면 0.5점, 틀리거나 모르면 0점으로 처리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각각 최저 0점부터 최고 2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변별도를 확인한 결과, 각각 '0.35-0.38'이 15문제씩, 0.50 이상 문제가 5문제씩으로 변별력은 적절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2.3.3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 평가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교육을 위한 4개의 시나리오(급성 호흡기 질환 간호, 투약 오류 관리, 수술 후 환자 간호, 수혈 간호)의 범위 안에서 간호 체크리스트가 개발되었다. 이는 내과 의사 1인과 시뮬레이션 교과목을 현재 가르치는 간호학 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CVI)가 .80 이상으로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항목에 대한 평가는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고 능숙하게 수행함'을 2점, '이론적 근거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수행함'이 1점, '이론적 근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균법을 틀리게 수행함'이 0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각각 최저 0점부터 최고 10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피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연구자가 속한 해당 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시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시작 전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인 서면동의를 받았다. 모든 자료는 연구목적에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참여 중에도 참여에 대한 거부의를 밝힐 수 있으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또한 연구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비밀유지와 익명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5년과 2016년 10월 시뮬레이션 교육이 끝나는 기말 평가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가 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직접 회수하였다.

2.5 연구진행절차

본 연구의 진행절차는 Fig. 1과 같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속한 간호대학의 시뮬레이션 교육과정(15차시)에 따라 1차시에 오리엔테이션과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2차시부터 4차시까지 급성 호흡기 질환 시나리오, 5차시부터 7차시까지 투약 오류 관리 시나리오, 8차시부터 10차시까지 수술 후 환자 간호 시나리오, 11차시부터 13차시까지 수혈 간호 시나리오 학습이 이루어졌다.

14차시에서 자율실습, 15차시에 마지막 평가와 함께 DISC 행동유형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시나리오

오와 관련된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은 각각 4차시, 7차시, 10차시, 13차시에 걸쳐 4회 평가하였고, 평가 점수를 토대로 DISC 행동유형에 따라 점수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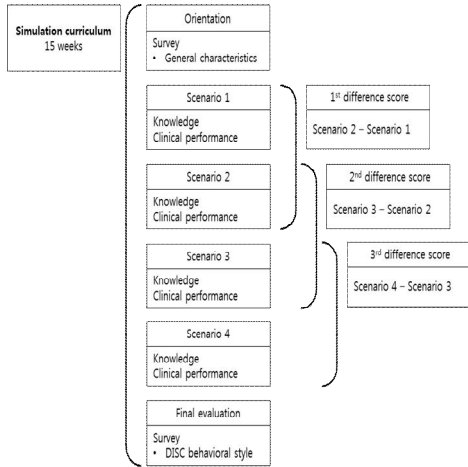


Fig. 1. Research process

2.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나이, 성별, 학과 만족도, 전학기 성적과 DISC 행동유형은 기술통계,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DISC 행동유형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hronbach's α값을 이용하였다.
- 측정 시점과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의 점수의 차이는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였다.
- 시간과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지식과 임상수행능력 점수의 변화와 차이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으로 연령, 성별, 전공만족도, 직전 학기 성적을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는 총 198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49(±0.87)

세였다. 성별은 여학생 160명(80.8%), 남학생 28명(19.2%)이었고, 전공 만족도는 ‘높다’가 108명(54.6%), ‘보통이다’가 47명(23.7%), ‘낮다’가 43명(22.7%)이었다. 직전 학기 성적은 ‘4.00-4.50’가 15명(7.6%), ‘3.50-3.99’가 79명(39.9%), ‘3.00-3.49’가 89명(44.9%), ‘2.50-2.99’가 15명(7.6%)이었다.

3.2 연구 대상자의 DISC 행동유형

연구 대상자의 DISC 행동유형은 Table 2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DISC 행동유형 분석결과, 주도형 21명(10.6%), 사교형 67명(33.8%), 안정형 96명(48.5%), 신중형 14명(7.1%)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98)

Characteristics	Mean±SD & n (%)
Age (yr)	22.49±0.87
Gender	
Female	160 (80.8)
Male	38 (19.2)
Satisfaction of major	
High	108 (54.6)
Moderate	47 (23.7)
Low	43 (22.7)
Accumulated last semester grade	
4.00-4.50	15 (7.6)
3.50-3.99	79 (39.9)
3.00-3.49	89 (44.9)
2.50-2.99	15 (7.6)

Table 2. Participant's DISC behavioral style (N=198)

Characteristics	Mean (SD)
Dominance	21 (10.6)
Influence	67 (33.8)
Steadiness	96 (48.5)
Conscientiousness	14 (7.1)

3.3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의 비교

나이, 성별,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의 비교는 Table 3과 같다.

측정시점에 따른 지식 점수는 1차(시나리오 2—시나리오 1; F=4.51, p=0.31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knowledge and clinical performance score between DISC behavioral style

Variables	Groups	D (n=21)	I (n=67)	S (n=96)	C (n=14)	F*	p*	Source	F**	p**
Knowledge, Mean±SD	First	-1.19±3.08	0.37±2.32	1.05±4.31	-1.86±2.11	4.51	0.317	Group	10.16	<.001
	Second	3.19±1.75	1.51±2.72	1.97±2.80	3.36±1.98	3.44	0.018	Time	3.48	0.017
	Third	0.67±3.28	2.66±4.03	1.70±4.85	3.85±2.82	2.18	<.001	Group×Time	5.87	<.001
Clinical performance, Mean±SD	First	-0.57±4.74	2.51±5.64	0.02±4.95	1.33±4.64	3.69	<.001	Group	2.64	0.024
	Second	9.98±8.95	11.64±10.28	6.42±7.58	7.34±11.04	4.70	0.003	Time	4.57	0.004
	Third	11.23±12.60	12.02±14.73	9.97±11.84	4.89±13.94	1.23	<.001	Group×Time	0.84	<.001

* : ANOVA

** : repeated measure ANOVA(Adjusted for age, gender, satisfaction of major, accumulated last semester grade)

First : 2nd scenario-1st scenario, Second : 3rd scenario-2nd scenario, Third : 4th scenario-3rd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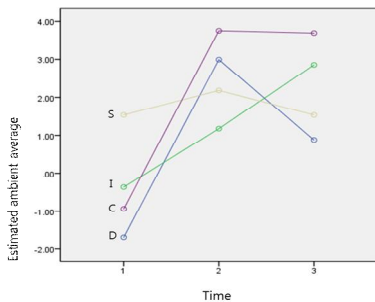


Fig. 2. Know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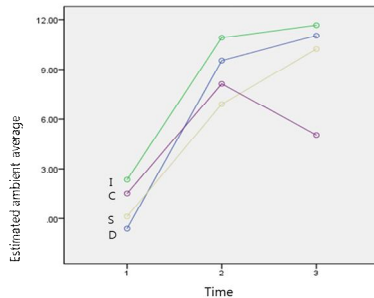


Fig. 3. Clinical performance

가 없었으나, 2차(시나리오 3—시나리오 2; $F=3.44$, $p=0.018$), 3차(시나리오 4—시나리오 3; $F=2.1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수행능력 점수는 1차(시나리오 2—시나리오 1; $F=3.69$, $p<.001$), 2차(시나리오 3—시나리오 2; $F=4.70$, $p=0.003$), 3차(시나리오 4—시나리오 3; $F=1.2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식 점수는 집단 간($F=10.16$, $p<.001$), 측정시점 간($F=3.48$, $p=0.017$), 집단과 측정시점 간의 교호작용($F=5.8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g. 2). 임상수행능력 점수는 집단 간($F=2.64$, $p=0.024$), 측정시점 간($F=4.57$, $p=0.004$), 집단과 측정시점 간의 교호작용($F=0.84$,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g. 3).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DISC 행동유형을 파악하고,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DISC 행동유형은 안정형 48.5%, 사교형 33.8%, 주도형 10.6%, 신중형 7.1%로 안정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사교형이 54.0%로 가장 많았고[21], 만화에 니메이션학과 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도 사교형이 41.7%로 가장 많았다[22].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안정형이 41.6%로 가장 많았고[18], 의과대학 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신중형과 안정형이 가장 많았다[23]. 이와 같이 DISC 행동유형의 분포는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의 DISC 행동유형과 학습성과를 비교해 본 이유는 시뮬레이션 교과목은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전 병원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필요한 실무역량을 습득이 목적이기 때문에[24] 전문 직업인인 간호사가 직면하는 문제상황에서 개인의 실질적인 행동유형을 파악하고 간호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을 어떻게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확

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교형의 경우 다른 행동유형과 비교하여 지식의 향상이 일정하게 꾸준히 향상되었고 임상수행능력도 가장 높은 점수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선행논문은 없으나 비슷한 맥락에서 개인의 성향(personality)이 성실하고 지속적인 계획을 가진 학습유형 일수록 학업성취와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25], 조직 구성원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행동유형을 가질수록 리더십과 다양한 전문역량의 통합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26].

시뮬레이션 교육의 경우, 마네킹과 대화하고 간호를 직접 수행해야 하며 동시에 팀 구성원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업에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담스러워 한다[27]. 더욱이 전공필수인 교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높은 학습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 새로운 학습 방법에 가능한 빨리 적응하고, 팀 동료들과 쉽게 친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교형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통제된 환경 보다는 자유로운 업무환경에서 창의적 활동을 지향한다[11].

또한 행동의 속도가 빠르며,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환경과 해로운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환경에서 구성원을 돕고 지원하는 성향 때문에 지식뿐만 아니라 임상수행능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쳤다[16]. 이는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강점으로 작용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주도형은 지식의 향상이 가장 낮았다. 주도형은 성취욕과 경쟁심이 높고 권위가 제공되는 환경, 개인적 성취가 가능한 환경을 선호한다[11]. 이와 같이 주도형이 선호하는 환경은 시뮬레이션 교육 환경과는 대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주도형 행동유형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팀 학습을 통한 지식의 통합 및 축적의 필요성과 효과적으로 팀 학습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주도형은 권위와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높은 목표를 갖고 있으며, 결단력이 강하고 다른 행동유형에 비해 업무수행과 의사결정 시 빠른 결과물을 도

출해 내는 경향이 있다[11]. 이러한 이유로 임상수행능력의 변화가 교육과정의 초반에는 낮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우 높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주도형 학생들에게 정확성과 안전성이 필요한 간호행위 수행 시 이론적 근거와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중형의 지식 점수는 꾸준히 향상되어 마지막 평가에서는 가장 많이 증가되었으나 임상수행능력은 가장 낮은 점수 차이를 보였다. 신중형은 심사숙고하며 엄격한 유형으로 일을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업무의 질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신중하게 일을 처리한다.

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나치게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가 높아 매우 비판적으로 행동하거나 문제상황을 돌파하지 못한다. 또한 신중한 태도가 과도하여 오히려 너무 오랜 시간을 소요하므로 문제해결의 기회를 놓치는 일도 빈번하다[10, 28]. 이러한 이유로 시뮬레이션 교육 안에서 매주 해결해야 하는 문제상황과 팀 구성원과의 신속한 의사결정, 짧은 기간 안에 습득해야 할 핵심술기 등은 신중형 학생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29].

안정형은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높지도 않은 일정한 점수를 유지하였다. 안정형은 구성원들과 잘 협력하며 인내와 심사숙고를 특징으로 신중하고 참을성이 많은 행동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 중심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팀 학습이 필요할 때 팀을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10, 28].

그러나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을 좋아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많은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큰 학습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안정형의 학생들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편성 시 익숙한 구성원을 함께 배정하거나 리더 역할을 강요하기보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학생의 행동유형에 따라 시뮬레이션 교육 후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의 성취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형의 학생들은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의 성취도가 모두 향상되었고 주도형의 학생들은 지식

보다 임상수행능력의 성취도가 향상되었다. 신중형은 지식 성취도에서 꾸준한 향상을 보였고 안정형은 다른 행동유형에 비해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의 성취도 변화가 적었다.

이상의 결과로 간호대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동유형은 다양하고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학습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장점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DISC 행동유형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간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고자 많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행동유형별 교육중재 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 기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하겠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교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연구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행동유형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다르므로 행동유형별 교육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학업 성취도의 정도를 비교, 평가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C. Gibbons, M. Dempster, M. Moutray, "Stress and eu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61, No.3, pp.282-290, 2008.
DOI: <https://dx.doi.org/10.1111/j.1365-2648.2007.04497.x>
- [2] F. Timmins, M. Kalisz, "Aspects of nurse education programmes that frequently cause stress to nursing students - fact-finding sample survey", *Nurse Education Today*, Vol.22, No.3, pp.203-211, 2002.
DOI: <https://dx.doi.org/10.1054/nedt.2001.0698>
- [3] C. K. L. Chan, W. K. W. So, D. Y. T. Fong, "Hong Kong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Stress and Their Coping Strategie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25, No.5, pp.307-313, 2009.
DOI: <https://dx.doi.org/10.1016/j.profnurs.2009.01.018>
- [4] D. L. Beck, R. Srivastava,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0, No.3, pp.127-133, 1991.
- [5] L. M. Moscaritolo, "Interventional strategies to decrease nursing student anxiety in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48, No.1, pp.17-23, 2009.
- [6] J. Bocchi, J. K. Eastman, C. O. Swift, "Retaining the online learner: Profile of students in an online MBA program and implications for teaching them",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Vol.79, No.4, pp.245-253, 2004.
DOI: <https://dx.doi.org/10.3200/JOEB.79.4.245-253>
- [7] J. M. Duck, Editor making the connection: Improving virtual team performance through behavioral assessment profiling and behavioral cues. developments in business simulation and experiential learning: proceedings of the annual ABSEL conference; 2014.
- [8] G. Puccio, C. Grivas,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Creativity Styles", *Creativity and Innovation Management*, Vol.18, No.4, pp.247-255, 2009.
DOI: <https://dx.doi.org/10.1111/j.1467-8691.2009.00535.x>
- [9] W. M. Marston. *Emotions of normal people*: Routledge; 2013.
- [10] M. Scarbecz, "Using the DISC system to motivate dental patient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Dental Association*, Vol.138, No.3, pp.381-385, 2007.
DOI: <https://dx.doi.org/10.14219/jada.archive.2007.0171>
- [11] D. Classic, "Everything DISC classic validation report", Minneapolis: Inscape Publishing, 2001.
- [12] N. E. Algert, K. Watson, "Behavior Profiles: Its Influence On Your Workplace Environment", *Women in Engineering ProActive Network*, 2006.
- [13] G. Beamish, "How chief executives learn and what behaviour factors distinguish them from other people", *Industrial and Commercial Training*, Vol.37, No.3, pp.138-144, 2005.
DOI: <https://dx.doi.org/10.1108/00197850510593746>
- [14] Y. J. Jun, K. S. Han, J. Y. Lim, I. A. Kim, "The effects of empowerment on job satisfaction; focusing on followership sty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1, No.1, pp.23-31, 2005.
- [15] L. Y. Sun, S. Aryee, K. S. Law, "High-Performance Human Resource Practices, Citizenship Behavior,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 Relational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50, No.3, pp.558-577, 2007.
DOI: <https://dx.doi.org/10.5465/amj.2007.25525821>
- [16] M. K. McKenna, C. D. Shelton, J. R. Darling, "The impact of behavioral style assessmen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 call for action", *Leadership &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Vol.23, No.6, pp.314-322, 2002.
DOI: <https://dx.doi.org/10.1108/01437730210441274>
- [17] E. K. Kim, S. Y. Lee, M. R. Eom, "DICS Behavior pattern and medication errors by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9, No.1, pp.28-38, 2013.
DOI: <https://dx.doi.org/10.1111/jkana.2013.19.1.28>
- [18] E. K. Roh, S. O. Shin, "The influence of job stress, disc behavioral type and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on job satisfaction among some nurses",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ol.20, No.4, pp.14-30, 2015.
- [19] J. W. Lee, Y. S. Eo, "Effect of Clinical Stress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 No.2, pp.125-134, 2013.
DOI: <https://dx.doi.org/10.12811/kshsm.2013.7.2.125>
- [20] S. Jang, S. J. Kim, Y. J. Kim, I. Y. Suh, C. Song, H. K. K.

Oh, I. J. Lee, J. Y. Lee, D. H. Hong, J. Kim, "Level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Nursing Students' Personality/Behavior Type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14, No.2, pp.81-89, 2017.
DOI: <https://dx.doi.org/10.16952/pns.2017.14.2.81>

- [21] Y. H. Lee,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disc behavior patterns in nursing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5, No.2, pp.523-538, 2015.
- [22] S. Kim, "A study of DISC behaviour patterns on the satisfaction difference of comic-animation department students: Focusing on satisfaction in the major and satisfaction of the university life",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Vol.47, pp.217-239, 2017.
DOI: <https://dx.doi.org/10.7230/KOSCAS.2017.47.217>
- [23] R. M. Bell, S. A. Fann, J. E. Morrison, J. R. Lisk, "Determining Personal Talents and Behavioral Styles of Applicants to Surgical Training: A New Look at an Old Problem, Part I", Journal of Surgical Education, Vol.68, No.6, pp.534-541, 2011.
DOI: <https://dx.doi.org/10.1016/j.jsurg.2011.05.016>
- [24] B. N. Harder, "Use of simulation in teaching and learning in health science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49, No.1, pp.23-28, 2010.
DOI: <https://dx.doi.org/10.3928/01484834-20090828-08>
- [25] V. V. Busato, F. J. Prins, J. J. Elshout, C. Hamaker, "Intellectual ability, learning style, personality, achievement motivation and academic success of psychology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29, No.6, pp.1057-1068, 2000.
DOI: [https://dx.doi.org/10.1016/S0191-8869\(99\)00253-6](https://dx.doi.org/10.1016/S0191-8869(99)00253-6)
- [26] M. T. Renaud, C. Rutledge, L. Shepherd, "Preparing Emotionally Intelligent Doctor of Nursing Practice Leader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51, No.8, pp.454-460, 2012.
DOI: <https://dx.doi.org/10.3928/01484834-20120523-03>
- [27] B. Robertson, B. Kaplan, H. Atallah, M. Higgins, M. J. Lewitt, D. S. Ander, "The Use of Simulation and a Modified TeamSTEPPS Curriculum for Medical and Nursing Student Team Training", Simulation in Healthcare: The Journal of the Society For Simulation in Healthcare, Vol.5, No.6, pp.332-337, 2010.
DOI: <https://dx.doi.org/10.1097/SIH.0b013e3181f008ad>
- [28] D. Lamarche-Bisson, "Learning styles: What are they? How can they help?", The World & I, Vol.17, No.9, pp.277, 2002.
- [29] H. G. Weller, J. Repman, G. E. Rooze, "The relationship of learning, behavior, and cognitive style in hypermedia-based instruction: implications for design of HBI", Computers in the Schools, Vol.10, No.3-4, pp.401-418, 1994.
DOI: https://dx.doi.org/10.1300/J025v10n03_09

김 해 란(Haeran Kim)

[정회원]



- 2004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09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2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2년 3월 ~ 2018년 3월 :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8년 4월 ~ 현재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